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8년 4월 1일

제08-14호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 재 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위원 (lgy@kiep.go.kr, Tel: 3460-1089)

신 현 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hjshin@kiep.go.kr, Tel: 3460-1053)

주요 내용

- ▣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와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최근 중동을 보완할 새로운 자원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 잠재매장량 기준으로 2,500~3,000억 배럴의 석유와 15~20조 입방미터의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채연수가 길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함.
 -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개발한 석유 및 가스를 CIS 주변국과 EU 등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보다 수송이 용이한 지역의 석유 및 가스의 수입을 위한 이윤창출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 한국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참여를 위한 자원외교를 실행해왔음.

 -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3개국을 중심으로 정상 및 고위층의 국빈 방문, 자원협력위원회 운영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간의 다양한 MOU 체결과 공기업 주도의 진출을 통해 민간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음.
 -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자본력과 기술력, 비체계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으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었음.
- ▣ 한국이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을 무역투자협력, 대외원조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이슈들과 함께 '전략적 경제협력'의 틀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산업다각화를 위한 투자 및 대외원조를 확대하고, 중앙아시아는 한국에 자원개발 우선권을 부여하는 상생(win-win)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원개발 참여 방향임.
 - 정상 및 고위급의 외교적 노력과 자원개발협력위원회 상설화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별로 차별화된 자원개발 참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중앙아시아: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자원공급원

- 중앙아시아¹⁾는 풍부한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중동을 보완할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²⁾의 석유·가스 확인매장량을 살펴보면, 석유는 479억 배럴로 세계 확인매장량의 3.9%, 가스는 9조 800만 입방미터로 세계 확인매장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잠재 매장량 기준으로 석유는 약 2,500~3,000억 배럴, 가스는 약 15~20조 입방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1.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가스 확인매장량 현황(2006년)

국가	석유			가스		
	확인매장량 (십억 배럴)	대세계 비중 (%)	가채연수 (년)	확인매장량 (조 입방미터)	대세계 비중 (%)	가채연수 (년)
카자흐스탄	39.8	3.3	76.5	3.00	1.7	100 이상
우즈베키스탄	0.6	-	13.0	1.87	1.0	33.7
투르크메니스탄	0.5	-	9.2	2.86	1.6	46.0
아제르바이잔	7.0	0.6	29.3	1.35	0.7	-
합계	47.9	3.9	-	9.08	5.0	-

자료: BP(2007), BP Statistical Review 2007.

- 중앙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는 가채연수가 길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함.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 생산량은 연간 1억 1,210만 톤(일일 약 237만 배럴)로 세계 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 생산량은 연간 1,478억 입방미터로 세계 생산량의 5.1%를 점유하고 있음.

1) 본래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카스피 해 동안(東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5개국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글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같은 이슬람 국가가면서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카스피 해 서안(西岸)의 아제르바이잔을 중앙아시아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음.

2) 특별한 언급이 없을 시 본문의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의 4개국을 지칭함.

- 석유는 카자흐스탄, 가스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주요 생산국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의 가채연수는 중동의 주요 산유국 수준으로 매우 길어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석유·가스 생산량 현황(2006년)

국가	석유		가스	
	생산량 (백만 톤)	대세계 비중 (%)	생산량 (십억 입방미터)	대세계 비중 (%)
카자흐스탄	66.1	1.7	23.9	0.8
우즈베키스탄	5.4	0.1	55.4	1.9
투르크메니스탄	8.1	0.2	62.2	2.2
아제르바이잔	32.5	0.8	6.3	0.2
합계	112.1	2.8	147.8	5.1

자료: BP(2007), *BP Statistical Review 2007*.

-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물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임.
-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다량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에너지원인 우라늄은 확인매장량 45만 톤으로 세계 1위이고, 구리도 전 세계 매장량의 6%를 점유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대의 노천 금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 3위의 금 매장국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각각 금과 알루미늄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2.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의 전략적 가치

- 한국은 세계 5위의 석유소비국(2006년 기준 1인당 석유소비량 16.18 배럴³⁾이자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3) 2008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2006년 기준 1인당 석유소비량에 따르면, 한국은 16.18배럴로 세계 5위를 차지함. 이는 6위인 대만, 7위인 일본보다 높은 순위이며, 비산유국으로서는 네덜란드에 이어 2위에 해당함.

-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 70~80%를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원거리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북해산이나 러시아산 우랄유(Urals)를 수입하는 것은 수송여건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러시아의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및 중앙아시아 등 비교적 근거리의 석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대체효과를 노리는 것이 필요함.
- 중앙아시아는 막대한 미개발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한국이 개발에 참여할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시장인 중동과 거대한 에너지 소비시장인 EU가 인접해 있어, 개발한 에너지를 수출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산 석유 및 가스는 질이 중동산보다 낮아 정제비용이 많이 들며, 산지(產地)가 내륙에 위치해 있고 수송인프라가 유럽 수출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어 중동보다 물류비용이 높게 드는 단점이 있음.
- 이에 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개발한 석유 및 가스는 CIS 주변국이나 EU 등의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근거리 석유 및 가스의 수입을 위한 이윤창출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현황 및 평가

가. 정부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협력정책

- 정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이윤창출을 목표로 각종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음.
- 총 2차에 걸쳐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 12월에 발표된 1차 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시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4년 12월에 시작된 2차 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의 목표를 국제적인 에너지 확보전 속에서의 본격적인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원 확보로 구체화하고 있음.
- 2006년 11월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비전 2030’⁴⁾이라는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제시하면서 가

4) 2006년 11월 28일 산업자원부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3대 기본방향, 5대 비전, 9대 실천과

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주개발률⁵⁾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2006년 3.2%에 그친 자주개발률을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18%,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는 계획임.

표 3.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구분	1차 기본계획(2001년 12월)	2차 기본계획(2004년 12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위기시 충격 최소화 ·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에너지원 자립능력 제고 ·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체계 개선 · 민간기업 참여확대 기반 확충 · 용자제도 개선 · 추진체계의 효율화 · 정보 및 기술기반 확충 ·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현대화 · 동북아 자원협력체제 구축 ·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투자재원 확충 · 민간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확대 ·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 관련 공기업 역량 강화 ·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강화 · 종합적 자원개발 지원체계 구축 · 해외자원개발 기술수준 제고

자료: 이재영 외(2006),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06-13, p. 187.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주요 지역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를 선정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3개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해왔음.⁶⁾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목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에 각각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였음.
 - 한국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간 공식 대화채널로서 1979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현재 25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중앙아시아 국가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이 포함되어 있음.
 -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중심국에 걸맞은 장관급 자원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에 제4차 자원협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

제를 포함한 '에너지정책 2030'을 제시함. 기본 골자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35%,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까지 확대하는 것임.

5) 에너지 자주개발률이란 국내 소비량에서 국내 기업에 의한 해외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6)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5대 정책으로 △ 생산자산 확보 △ 한국형 동반진출모델을 활용한 유전 확보 △ 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 강화 △ 자주개발역량 확충을 위한 유전개발 R&D 기반 구축 △ 유전개발 투자 촉진 및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노력 강화 등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일보』(2007. 2. 20), 「해외석유자원개발 5대 정책」 참조.

-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자원협력위원회는 실무급인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8월에는 제1차 한·아제르바이잔 자원협력위원회가, 2007년 11월에는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자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음.
- 정부는 해당국 정부와 다양한 MOU 체결을 통해 민간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했으며, 민간기업들의 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신규 개발사업에 진출하였음.
 - 중앙아시아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소련식으로 의사결정이 정부 및 국영기업에 귀속되어 있어, 한국이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특히 정부간 또는 국영기업간 MOU는 모든 협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통과의례임.
 -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대규모 석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기업의 투자는 규모와 리스크 측면에서 힘든 것이 사실이어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고 있음.

표 4. 한국의 자원협력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 / 분류	2003년 말 기준	2007년 말 기준
아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중국	필리핀, 미얀마, 인도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아프리카	-	콩고, 알제리, 나이지리아(★)
중동·대양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

주: ★는 장관급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국가.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6년 9월 4일).

나. 자원개발 현황

- 한국의 석유 및 가스 개발 참여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2007년 말 기준 중앙아시아 석유·가스 개발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한국의 중앙아시아 석유·가스 개발 현황(2007년 말 기준)

국가	개발광구	한국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카자흐스탄	잠빌(Zhambyl)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27%(탐사 성공시 추가 23% 선매권) * 한국컨소시엄 지분의 참여사별 비중: 한국석유공사 35%, SK 25%, LG상사 20%, 삼성물산 10%, 대성산업 5%, 대우조선해양 5%	16.6억 배럴
	ADA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50%(석유공 22.5%, LG상사 22.5%, 기타 5%)	1.7억 배럴
	에기즈카라 (Egizkara) 유전	LG상사	LG상사 50%	2억 배럴
	남카르포프스키 (South Karpovsky) 가스전	한국컨소시엄	50%(석유공 17.5%, GS홀딩스 12.5%, 경남기업 7.5%, 금호석유 5%, 현대중공업 5%, 카즈너지 2.5%)	4,600만 톤
	사크라마바스 (Sarkramabas) 유전	KS에너지(세하, 우리투자증권 등)	50%(세하 25%, 기타 25%)	2.7억 배럴
	웨스트 보조바 (West Bozoba) 유전	KS에너지(세하, 우리투자증권 등)	50%(세하 25%, 기타 25%)	1.6억 배럴
	8광구 유전	LG상사, SK	100%(LG상사 50%, SK 50%)	2.5억 배럴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석유공	20%(생산물분배조약)	3,600만 톤
	나망간 (Namangan)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4.35억 배럴
	추스트 (Chust) 유전	한국컨소시엄	사업성 평가 수행 (2006년 12월)	3.8억 배럴
아제르바이잔	이남(Inam) 유전	한국컨소시엄	20%(석유공 8%, 경남기업 4%, GS칼텍스 4%, 대우인터내셔널 2%, STX 2%)	7.5억 배럴

자료: 필자 작성.

- 한국은 2008년 들어 우즈베키스탄과 2건의 대규모 석유·가스 개발권을 획득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 주도의 한국컨소시엄⁷⁾은 2월 25일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가스회사인 우즈베크네프테가즈(Uzbekneftegaz)와 수르길(Surgil) 가스전 및 가스화학단지 개발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음.
- o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은 약 4.7조 입방피트로,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가스전 중 최대 규모인 미얀마 가스전(4.5~7.7조 입방피트)과 맞먹는 규모이며, 한국의 3.7년치 사용량에 해당함.
- 대우인터내셔널도 같은 날 우즈베크네프테가즈(Uzbekneftegaz)와 우즈베키스탄 35·36 육상 광구 탐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o 이 광구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두 광구의 지분 전량을 확보하고 광구 운영권자로 향후 5년간 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막대한 천연가스를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자원개발 참여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CIS 국가들 중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2005년 말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1.6%, 세계 추정매장량의 10%)한 에너지 부국임.
-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독재와 폐쇄경제정책으로 자국의 자원개발 및 외국의 자원개발 진출이 부진했으나, 2007년 초에 새로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카스피 해 해상 30여 개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음.
- 한국정부는 2007년 5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LG상사 등 총 6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자원협력사절단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하여 다양한 자원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국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금, 구리, 우라늄 등의 전략적 광물자원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음.
- 한국의 2007년 말 기준 중앙아시아 광물자원 개발 참여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음.

7) 한국컨소시엄의 지분은 한국가스공사 50%, 롯데대신유화 17.5%, LG상사 5.0%, SK가스 5.0%, STX에너지 5.0%로 구성되어 있음.

표 6. 한국의 중앙아시아 광물자원 개발 현황(2007년 말 기준)

국가	개발사업	한국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개발단계
카자흐스탄	아약코잔 구리광	포넷	합작법인 지분 60%	5만 톤(가채)	타당성조사
	카라타스 몰리브덴 동광	엔디코프	33.3%	-	개발준비
우즈베키스탄	자파드노 금광	광진공, 경남기업, 대우, SKN	50% (광진공 20%, 기타 각 10%)	60톤	타당성조사
	잔타우르 우라늄광	광진공	50%	2.6만 톤	타당성조사 결과분석

자료: 필자 작성.

다. 평가 및 시사점

- 한국은 중앙아시아를 주요 해외자원개발 대상국으로 인식하고, 해당 정부부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특히 자원개발 부문은 중앙아시아 주요국들의 성장 원동력이자 최대 수출부문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보호 및 육성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전히 국가 및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도 정부 및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
 -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최대 자원보유국은 이미 주요 선진국 자본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상태여서 한국에 돌아올 몫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임.
 - 물론 이제 막 본격적인 자원개발을 시작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사정은 카자흐스탄보다는 양호하지만, 이 역시도 주요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함.
 - 정부와 기업이 민관 합동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선진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비해 밀릴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미래가 달린 자원개발 부문의 협력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개발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음.
- 이에 한국은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자본력, 미국과 EU 에너지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에 밀리는 형국임.
-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선진국에 비해 늦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음.
- 정상이 자원외교 순방을 끝마친 이후에야 후속사업을 위한 부서가 구성되는 수준이었음.
- 다만 2007년 11월 15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계기로 다소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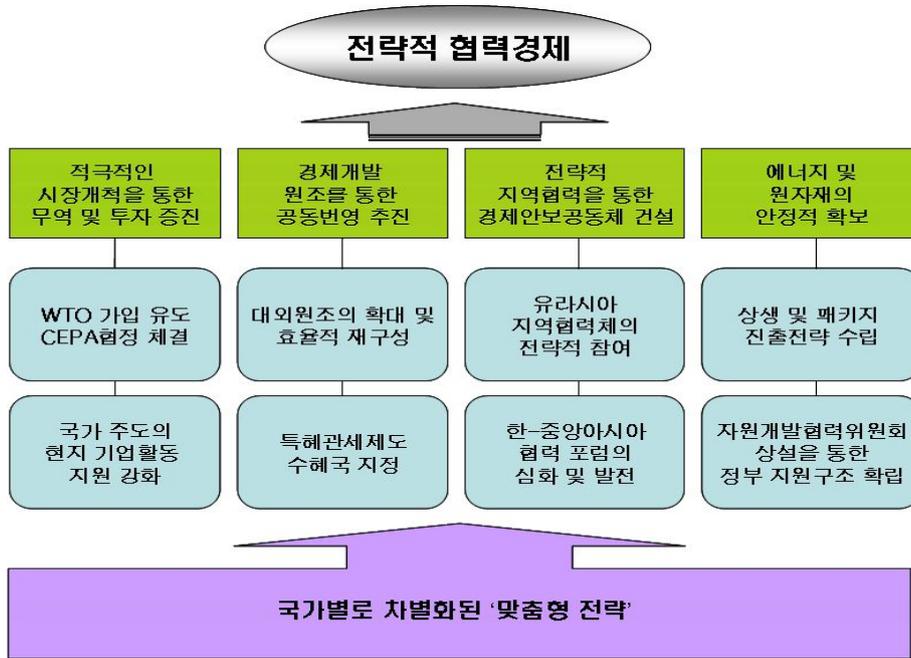
5. 한국의 바람직한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참여전략

-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자원외교’는 무역 및 투자 협력, 대외원조 등 다른 경제협력 이슈들과 함께 ‘전략적 협력경제’라는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상협력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⁸⁾
- 전략적 협력경제는 경쟁축진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호보완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자유교역의 이득을 최대한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윈윈 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개념임.⁹⁾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들의 산업다각화를 위한 투자 및 대외원조를 한국이 확대하고, 한국에는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우선권을 부여하는 상생(win-win) 협력이 가장 바람직한 한·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협력이라고 보고 있음.
- 실제로 2007년 9월 카자흐스탄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 술타노브(Bulat Sultanov) 소장은 방한 중에 “이제 중앙아시아와 에너지협력을 논하는 것은 식상하다. 중앙아시아는 산업다각화가 필요하며,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집중 논의하고 싶다”고 속내를 밝힌 바 있음.

8) 자세한 내용은 이재영·신현준 편저(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3 참조.

9) 채욱·김세원·유재원 외(2006),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KIEP 연구보고서 06-01, p. 192.

그림 1. 한국의 대중아시아 전략적 협력경제 개념도



자료: 이재영 · 신현준 편저(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13, p. 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위급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자원개발협력위원회를 상설 및 영구조직화하여 정부의 지원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정치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정상간 및 고위급 정부인사간 교류의 확대는 필수적임.
- 현재 국별 비상설조직으로 존재하는 자원협력위원회를 상설 및 영구조직화함으로써 정부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정책 및 민간기업 지원기능을 일원화하며, 장기적인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청사진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특히 2008년 3월 중순경에 법인등록절차를 마치고 공식출범할 ‘해외자원개발협회’¹⁰⁾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진출지원 및 정보제공을 담당한다면, 상설 및 영구조직화한 자원협력위원회는 정부의 협력대상국간 고위급 자원외교 확대 및 정부의 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적절함.

10) 해외자원개발협회는 한국석유공사, KOTRA, 한국전력,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비롯해 SK 에너지, GS칼텍스 등 광물자원개발협회에 소속된 5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 해외자원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 투자유망사업 발굴조사 △ 자원개발 정보시스템 구축과 자료제공 △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지원 등이 있음.

- 한국은 제조업 및 기술을 중앙아시아에 이전하고 중앙아시아는 한국에 자원개발 협력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주고받기식의 상생(win-win) 전략과, 한국의 비교우위산업 진출과 자원개발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키지(package)형 진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생(win-win) 전략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한 맞춤형 개발전략임.
 - 한국은 상대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우리가 상대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원자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고위급 회담 및 정책협의체를 통해 빅딜(big deal)을 성사시키는 것이 필요함.
 - 중앙아시아는 자원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 및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한국의 산업들이 패키지로 진출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석유개발사와 건설사가 동반 진출하여, 한 측에서는 석유를 개발하고 한 측에서는 개발되는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플랜트를 건설해주는 것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자원개발 참여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매장량,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카자흐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투자매력이 매우 높아 자원개발을 선도하는 국가이며, 경쟁이 치열한 대신에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기존에 구축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심화시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고위층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에는 전략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소수의 국가들(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만이 참여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개방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이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은 높은 대신 경쟁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우리와의 경제협력의 역사는 짧으나, 막대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수송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자원개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IT 산업을 위시한 산업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며, 석유정제시설, 파이프라인 개보수 등에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를 원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투자 리스크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스화학산업과 연계하여 육상 석유 및 가스개발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육상광구는 개방하지 않고 카스피 해 해상광구만 개방하고 있으나, 카스피 해 해상광구는 이란, 아제르바이잔과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이에 투르크메니스탄이 필요로 하는 가스화학시설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해상광구보다는 추후 개방될 육상광구에 대한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함.
- 보다 유리한 육상광구 참여를 위해서는 GTL(Gas-to-liquid) Pilot 플랜트 건설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신도시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신도시 개발을 지원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임.